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7, 다니엘 4, 겸손한 왕과 하나님의 회복된 능력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Wendy Witter 박사와 다니엘서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다니엘 4장, 겸손한 왕과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니엘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강의 제목은 겸손한 왕과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또한 겸손한 왕에 관한 다음 장과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에서 그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5장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와서 4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Daniel four, anarchy-asm, 정말 이걸 칠판에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동상의 꿈이다. 지상에는 네 개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이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6장, 다니엘과 사자.

우리가 지금 있는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5장은 이에 대한 대위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그의 두 번째 꿈이자 세 번째 꿈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세 번째 기적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그의 이전 꿈과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꿈에서 그는 괴로운 꿈을 꾸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능히 도와주지 못하므로 사형을 선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 주니라 그래서 그 줄거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4장은 비슷하지만 왕과 전문가 사이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4장에서 그는 언제 괴로운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그런데 그의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없어서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본 스토리는 동일합니다.

이는 또한 법정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특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왕의 전문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 포로가 있고 능력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법정 경쟁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이 장을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읽을 것이며 다섯 개의 다른 섹션이 있습니다. 내가 경고하면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장은 실제로 내러티브 목소리가 번갈아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따라서 처음 두 부분은 1인칭 음성이고 느부갓네살의 1인칭 음성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두 섹션에 있거나 실제로는 하나로 간주하고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이 1인칭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며 중간에 3인칭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지적 해설자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다가 거의 매끄럽게 전환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그녀, 그리고 결국엔 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그것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학적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빠르게 논의한 후 느부갓네살의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내게 좋은 줄 알았노라 그분의 표징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의 경이로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그것은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의 사지를 찢을 준비가 되어 있던 느부갓네살의 서문입니다.

이것은 왕이 쓴 정말 놀라운 송영인데 편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화자와 그의 청중을 식별합니다. 이는 왕실 편지나 실제로 이 시대의 모든 아람어 편지의 표준 형식입니다. 작가가 있고 청중이 있으면 이런 인사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람어 문자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자, 만약 당신이 구약의 유대인이고 여기를 읽고 있거나 듣고 있고 표적과 기사를 듣는다면, 그 한 쌍의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 사건의 재앙인 재앙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약성서에서 거의 항상 사용되는 단어 쌍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적과 기사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느니라.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이 언어는 적어도 그의 유대인 청중에게는 출애굽과 바로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장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방금 읽은 이 찬송은, 그분의 표징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기사가 얼마나 강력하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지속되며, 마지막에는 실제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두 번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 즉 장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비슷한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말하고 조금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클루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그의 영원한 통치라는 주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요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영원한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가 꿈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b ⁴느부갓네살은 내 집에 평안하며 내 궁궐에서 형통하였느니라. **5** 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머릿속의 상상과 환상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6**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느니라 **7** 그 때에 박수와 마술사와 갈대아인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 오 박수장 벨드사살이여, 나는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네게는 어려운 비밀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가 본 꿈의 환상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 내가 침상에 누웠을 때에 내 머리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 가운데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키가 심히 크더라. **11** 나무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온 땅 끝까지 보이니라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의 식물이 있더라. 들짐승들이 그 아래 그늘을 찾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거하며 모든 육체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느니라.

13 “내가 침상에 누웠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14**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떼어내고 열매를 뿌리십시오.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도망가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도망가게 하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를 하늘 이슬에 젖게 하소서. 그의 뭍은 땅의 풀밭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16**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소서 그에게 일곱 기간이 지나도록 하라.

아, 멀리 갔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잠깐만요,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았어, 난 괜찮아.

17 판결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되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되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들! **18** 이 꿈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이었습니다.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좋습니다, 이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또한 이 1인칭 부분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경험하는 배경은 그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통치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는 평안하므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며 내 집에서 평안하며 내 궁궐에서 형통하느니라 우리는 그가 금의 머리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이 젊은 왕에게 올해가 겨우 2년이 되었으며, 그가 금 머리가 될 것이며, 그가 위대해지고 통치권과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장에서는 그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는 위협이 없습니다. 그는 금의 머리이다.

그리고 이 꿈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이 괴로운 꿈이요. 이제 고대 근동의 꿈, 특히 당신이 왕이라면, 꿈이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꿈을 통해 일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아내야 해요. 이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법원 관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쟁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의 전문적인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임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그의 전문가들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신성한 영역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이 본 것을 왕에게 반복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며, 왕은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매우 혼란 일입니다.

당신은 꿈의 보고를 듣고 그 해석이 종종 보고와 해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왕이 방금 말한 내용을 많이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우리는 왕이 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본 것에 대한 다니엘의 리허설과 다니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란히 놓으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서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다 보면 가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보고한 내용에서 다니엘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방식은 그에게 중요한 것,

그가 초점을 맞춘 것들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땅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죠? 다니엘은 그런 말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왕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한 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 나무에서 모든 육체가 유지되고, 모든 것이 이 나무에서 공급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십시오. 다니엘의 보고를 받으면 그들에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에게 유익을 주는 이 우주 나무에 대한 이 개념은 다니엘 4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이 우주 나무의 상당히 일반적인 모티브이며 종종 왕을 나타냅니다. 왕들은 왕국의 주민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왕의 꿈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그가 이 웅장한 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려지고 파괴되어 결국 짐승이 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지가 그리 밋밋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꿈이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을 확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나무 경험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니엘의 원래 청중이 왕의 꿈을 들었을 때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 즉 큰 나무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말하라 네 위엄이 누구와 같으냐 보라, 앗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 가지가 아름다우며 숲 그늘이 있고 높이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에 있느니라.

물이 그 나무를 기르고 깊은 물이 자라게 하여 그 심은 곳 주위에 강이 흐르게 하여 그 시내를 들의 모든 나무에 흘렀느니라. 그것은 들의 모든 나무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싹에 물이 많아서 가지가 커지고 가지가 길어졌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짐승은 모두 그 가지 아래에 새끼를 낳으니라.

그 그림자 아래에는 모든 위대한 나라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답고 가지가 길었으니 그 뿌리가 많은 물에 닿았음이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이에 미치지 못하며 잣나무도 그 가지와 같을 수 없느니라.

평범한 나무도 그 가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그 아름다움이 이와 같은 나무가 없더라. 나는 그 가지들을 모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그것을 부러워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되었느니라. 아시리아를 상징하는 웅장한 나무. 글썄요, 이 나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높이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에 있음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그것을 만국의 능하신 자의 손에 붙이리라.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사악함에 합당한 대로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쫓았다. 외국인들이 잘라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매우 유사한 소리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에스겔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 꿈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이 '아 잠깐만요. 우리는 큰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꿈을 꾀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은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천상의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감시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언어는 제2성전 문학과 묵시문학에서 매우 흔해졌습니다.

우리는 감시자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생물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구별되고 다릅니다. 좋아요, 그게 왕의 꿈이군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생각이 번민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이제 눈치 채지 못했다면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전환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꿈이나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꿈은 주를 미워하는 자에게로 주고 그 해석은 주의 원수에게로 하옵소서 네가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튼튼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온 땅 끝까지 보였으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 만민의 먹을 것이 되었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있더라 그늘을 찾으시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거하는 곳이니 왕이여 자라서 강건하신 이가 바로 왕이시니이다 주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주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나이다.

왕이 보니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찍어 찍어버리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연푼에 매어 두라 하더라 들에서 떠나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때까지 들짐승과 함께 그 분깃을

누리게 하라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 이 내 주 왕에게 임하였나니 왕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일곱 기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리라 . 또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명하신 것 같이 하늘이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아는 그 때부터 네 나라가 굳게 서리라.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조언을 당신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의를 행하여 너희 죄를 끊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 죄악을 끊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연설의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왕의 꿈에 대한 두 번째 설명, 즉 다니엘이 그 꿈을 반복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왕의 말을 평가하고, 그가 말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는 꿈을 알지 못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와 그의 세 친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비밀을 알려 달라고 기도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를 방해한다. 그는 이 꿈의 의미 때문에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겁에 질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에게 말하게 될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고 싶나요?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만 꿈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미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개입하는 것은 비록 메시지가 나뉘더라도 그것은 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들의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에 이 꿈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것이 왕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두 장에서 그는 열광하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이 장에서 그는 실제로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애착이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원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그 꿈을 얼마나 빨리 이해했는지 볼 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박사들도 그 꿈을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을 압니다.

글쎄, 나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의 현자들이 그에게 답을 말해주지 못하거나, 그에게 답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보고한 사람이다.

본문은 현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다고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마도 그것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꿈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나무.

우리는 나무가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게 잘립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 수 있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세부 사항이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지, 아니면 해석하지 않았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관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안해할 때 느부갓네살은 그를 격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 주세요. 귀하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앞뒤로 반복합니다. 왕이 본 장면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보고에서 무엇을 생략했거나 변경했는지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무가 땅 한가운데에 있고 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나무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땅 한가운데에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그 엄청난 높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왕이 자신에 대해 좀 더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또한 모든 육체가 나무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무에 그들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들을 지탱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고한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공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의를 행하여 너희 죄를 끊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 죄악을 끊어라.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능력에는 모든 것을 위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 할 만큼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기서 판단의 일부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2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장의 꿈을 해석하면 느부갓네살은 금머리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사 온 인류와 들짐승과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새. 2장부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니엘이 그에게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4장에서 듣게 됩니다: 당신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높이 솟아오른 무성한 생명나무입니다. 당신에게는 지배권이 있으며, 당신의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꿈이 예언한 대로 당신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더 강력한 왕국,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첫 번째 꿈의 요점을 놓쳤으며, 그는 실제로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파생된 권위와 파생된 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빼먹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략한 것은 여기 어느 시점에서 짐승으로 변하는 이 나무가 들짐승처럼 되어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다니엘은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찍고 없애버리고 일곱 때까지 들짐승과 그 몫을 나누게 하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것입니다. 너의 거처는 들짐승과 함께 있을 것이다. 풀을 먹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일곱 기간이 당신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는 왕이 기본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왕이 요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그에게 반복하지 않거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왕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이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왕이 그 뜻을 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추측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 생략, 변화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른지

알아차리는 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회개하여 이 형벌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여전히 3인칭 시점입니다.

이것이 꿈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개월이 지나자 그는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내 전능한 능력으로 건축하여 왕궁과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큰 바벨론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아,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것이 네게 이르노니. 왕국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요 일곱 기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이르리라 할 것이다. 그 즉시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만큼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있습니다.

꿈과 해석, 성취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셨나요? 12개월이 지나매 느부갓네살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왜 12개월의 공백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잠시 회개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니엘의 조언을 따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12개월을 더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술자는 이 꿈이 성취되는 계기가 느부갓네살의 교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건설한 이 위대한 도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 영광, 위엄. 그것은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인간 통치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꿈은 시작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신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 용어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의 교만과 교만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비천한 짐승, 심지어 인간 이하의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역사성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말년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둘째, 그가 이 내용을 연대기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꽤 굴욕적이네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이는 아마도 그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굴욕적이네요. 또한, 왕의 통치는 철저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그가 보존했을 유형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고고학이 여기서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굴한 것들에서 그가 정신을 잃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생애 말년에 그가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을 앓았을 수도 있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단편적인 비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는 다니엘의 본문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는 다른 왕인 나보니두스에게 일어난 일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5장에 이르면 나보니두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이후 어느 시점에 나오며, 나보니두스가 정신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는 상당히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한동안 왕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통치할 수 없었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두루마리, 사해에서 발견된 단편 두루마리, 쿨란 두루마리에 나보니두스의 기도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문은 나보니두스 왕이 자신이 짐승처럼 변한 이 고난에 대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유대 점술가인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가 꿈의 해석을 알려 주었습니다.

꾸란의 문서인 나보니두스의 기도와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우 비판적인 학자인 존 콜린스(John Collins)는 자동적으로 나보니두스(Nabonidus)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납치된 나보니두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제로 쿨란의 나보니두스 기도의 일부 재구성이 다니엘을 기초로 두루마리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그 기도와 다니엘서 사이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 이 조각들을 찾았을 때,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맥락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대개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깨진 단어나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다니엘서 4장과 나보니두스라는 두 기록 사이에 많은 연관성이 있지만,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 일부는 단지 문맥보다는 다니엘 4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들이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관계의 정확한 성격은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서술자는 다니엘서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만한 인간 왕이 하나님에 의해 겸손해지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섹션인 1인칭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됩니다.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게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거나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느니라 그와 동시에 나의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위엄과 영화도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내 모사들과 내 주들이 나를 찾았으므로 내가 내 나라에 굳게 서고 더욱 위대함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하나니 그의 행사는 모두 의롭고 그의 길은 의로우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실 수 있음이로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장 이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5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마도 다니엘서 첫

부분의 주인공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패배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성전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조각상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금의 머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에게 도전한 사람이고, 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중심 인물이고,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그는 문학적으로만 볼 때 가장 발전된 인물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고 따르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묘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다채롭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은 4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 왕을 거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이방인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면에서 전형적인 이방인 왕입니다. 그는 이방인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느부갓네살.

그는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예요.

게다가 그는 바빌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약성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대,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여행을 보십시오. 세상 동안 우리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이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가 아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4장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이 권력을 부여할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에게 약간을 주었다. 한편 느부갓네살은 사악한 이방 왕의 전형이다. 반면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왕이 되어야 할 모습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요? 그에게는 큰 힘이 주어졌습니다. 예. 누가 그에게 주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찬송, 즉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마치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 나는 내 왕국에 굳게 서게 되었고 나에게 더욱 위대함이 더해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옳다.

그분의 길은 공정합니다. 그분은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그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손을 들고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합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며, 그는 자신의 왕국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교만과 그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회심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화자의 요점은 그게 아니다.

서술자의 요점은 이 강력한 이방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한 왕임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화자가 여기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5장에 이르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무 꿈에 관한 전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벨사살에 대한 비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것은 Wendy Witter 박사와 다니엘서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다니엘 4장, 겸손한 왕과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